

인 적 사 항

1. 성 명(국문) : 이 종 화

(한문) : 李 鍾 和

2. 생 년 월 일 : 1960년 1월 23일

3. 현 직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4. 학 력 :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1977-1981)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81-1983)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87-1992)



5. 주요경력 및 연구업적(5개항 이내) :

경 력 : ①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 (1992-1993)

②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국장, 조사국장 겸

수석이코노미스트 (2007-2010)

③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 겸 G20 셰르파 (2011-2013)

④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2016)

⑤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2017)

연구업적 : ① "Government interventions and productivity growth." *Journal of Economic Growth* 1.3 (1996): 391-414.

② "International measures of schooling years and schooling 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86.2 (1996): 218-223.
(with R. J. Barro).

③ "How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 economic growth?."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5.1 (1998): 115-135.
(with E. Borensztein and J. De Gregorio).

④ "IMF programs: Who is chosen and what are the effect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2.7 (2005): 1245-1269.
(with R. J. Barro).

⑤ "Human capital in the long run."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22 (2016): 147-169. (with Hanol Lee).

자기 소개서

먼저 부족한 저를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으로 추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70년 가까이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을 대표해 온 한국경제학회의 수석부회장 후보로 추천되어, 영광스럽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여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던 가난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학부 2학년 때 접한 거시경제학에 흥미를 느끼고 경제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연구원, 학원 강사를 하면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시간 강사 생활을 거쳐 충남 천안의 호서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일하다가 1987년에 하버드대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 시절에는 거시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을 전공으로 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의 연구는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인적자본, 개방거시, 금융위기, 경제통합 등 거시경제의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지도교수였던 로버트 배로 교수와 공저로 인적자본과 경제성장에 관한 여러 연구를 주요 학술지에 발표하였으며, 지금까지 영문 저널에 102편, 국문 저널에 21편을 게재했습니다. 구글 스칼라에 의하면 제 연구들이 총 40,000회 넘게 인용되고 있으며, 한국경제학회 청람상, 매경이코노미스트상, 다산경제학상을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가 발생하여 고통을 겪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금융위기의 원인과 정책 대응, IMF 프로그램의 효과, 경제통합의 편익과 비용 추정 등과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4년간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지역협력국장, 조사국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국제경제보좌관으로 2년간 행정과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경제정책 수립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교로 복귀하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면서 아시아와 남북한의 정치·경제 협력에 관심을 두고 관련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았고 수많은 학술회의에 참여하며 국내외 학자들과 교류했습니다. 하버드대학, 컬럼비아대학, 북경대학, 고베대학, 호주국립대학, 칠레 중앙은행 등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2017년에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을 맡아 학회 4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국제경제연구 편집위원장으로 학계에 봉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993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국내외 학계를 비롯하여 정부와 사회 각층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기여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다면, 그동안 제가 쌓은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와 학계에서 받은 도움에 보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들과 교류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70주년을 맞는 한국경제학회의 위상을 한국 사회와 세계 학계에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 약 사 항

한국경제학회는 1952년 출범 이후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님들의 노력으로 명실상부한 한국의 경제학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제가 수석부회장이 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학회의 업적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여 국내외에서 학회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 70주년 기념사업으로 학회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외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70주년을 맞는 한국경제학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7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의 대표 경제학회가 참여하는 세션,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세션**, 그리고 주요 기관회원들이 참여하는 공동 세션을 마련하여 한국경제학회가 **아시아 대표 경제학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한국경제 포럼'을 발족하겠습니다. 회원들과 정부, 민간 관계기관,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정기 모임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는 민관산학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 위원회**를 미리 구성하고 정부, 공공단체, 국제기구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 지역과 세대를 아울러 소통하고 상생하는 열린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본회와 지회가 함께 발전하고 소장 학자와 여성 학자, 그리고 다양한 전공의 경제학자가 보다 많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경제학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에서 다양한 학자들을 참여시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포용적인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지회 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회와 지역 대학, 지역 소재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연구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학회 발전과 학술대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재원을 확충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우수한 소장 경제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연구기금을 확보**하고 종신회원과 기관회원을 늘리겠습니다. **재원을 확충**하여 지방 소재 연구자와 신진학자의 국내외 학회 참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신진연구자 발표 세션, 박사과정생 발표 세션을 학술대회에** 개설하고 중견 연구자가 세션에 참여하여 **지속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국내 대학 박사 졸업예정자의 우수 논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학회 발표 기회와 연구지원금을 수여하겠습니다. 또한, 언론기관과 협력하여 대학원과 학부의 **경제학 전공 학생의 우수 논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미국경제학회(AEA)처럼 공동학술대회 중에서 포스터 세션을 갖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4. 경제학 교육과 대중화에 힘쓰겠습니다.

학회의 사회 기여를 높이고 경제학의 대중화에 힘쓰겠습니다. 첫째, **중고등학생과 일반 대중도 쉽게 경제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유튜브 등 **SNS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학제 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경제학이 주 전공이 아닌 대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경제학이 더 넓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국경제학회(AEA)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처럼 다양한 강좌(머신 러닝, 경제학 교육 방법 등)를 시범사업으로 개설하여 **회원들의 평생 학습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